

Thematic Radar

Ep. 43 미국 내 원전 정책 모멘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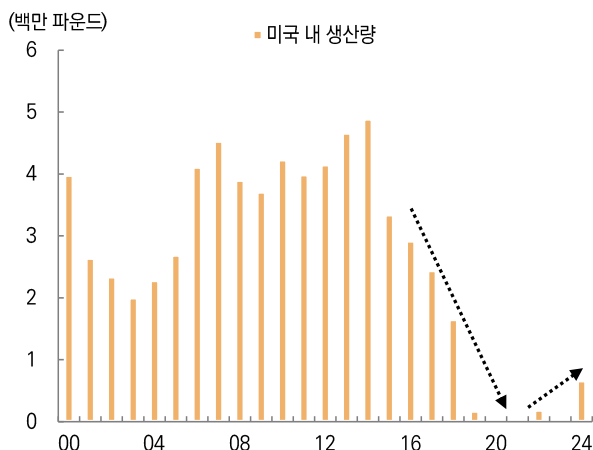
- 미국-영국 정상회담에서 양국 신규 원전 인허가 시간을 단축시켜 설립을 가속화하는 협정 체결 예정
- 미국 전략적 우라늄 비축량을 확대할 계획도 발표. 미국 내 우라늄 채굴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
- 원자력 및 우라늄 ETF 주가 및 펀드플로우도 상승세. 원전에 대한 미국의 정책 모멘텀 지속될 가능성 높음

미국과 영국은 16일부터 열린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개발을 가속화하는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협정은 지난 5월 행정명령에 이은 규제 완화를 통한 원전 산업 활성화 기조의 일환이다. 협정의 목표는 신규 원전의 인허가 시간을 기존 3~4년에서 약 2년으로 줄여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데 있다. 긴 인허가 기간은 신규 원전 건설에 가장 큰 방해 요인이었다. 가장 최근에 건설된 미국 원전인 Vogtle은 통합 인허가(COL) 기간만 총 3년 10개월이 걸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 100GW 미만에서 400GW로 4배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5년 동안 300GW의 원자력 용량을 추가로 더하기 위해서는 신규 원전 건설의 가속화가 필수적이다. 원전 건설 기간을 단축시키는 미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라늄 채굴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15일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미국이 전략적 우라늄 비축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내 우라늄 생산량은 가격 경쟁력 약화로 1980년 이후 구조적 감소세를 보여왔다. IAEA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의 우라늄 재고는 평균 14개월치로 EU와 중국이 각각 2.5년, 12년치를 비축하고 있는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가스 수급 변동성 확대로 원전이 다시 각광받고, 2028년부터 러시아산 농축우라늄 수입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등 자국 내 생산량 증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2024년 미국 내 우라늄 생산량은 70만 파운드로 반등했지만 2010년대 4~500만 파운드를 생산하던 것에 비해 부족하다. 우라늄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은 자국 내 채굴 회사들에 투자를 지속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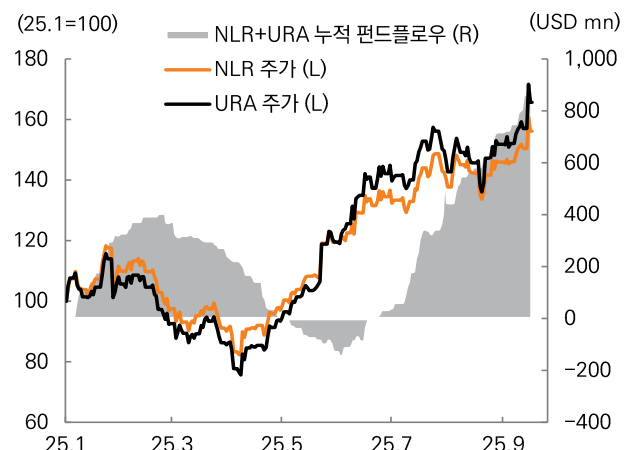
이러한 정책 기조가 반영되며 원전 테마형 ETF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큰 원자력(NLR), 우라늄(URA) ETF는 YTD 기준 각각 57%, 66% 상승했다. 5월 23일 원전 관련 행정명령 이후 누적 펀드플로우도 순유입세로 전환됐다. 올해 NLR, URA로 총 9.2억 달러(시가총액 합계의 약 12%)가 순유입됐다. 단기 주가 상승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으나 미국의 원전 정책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원전 개발 및 우라늄 기업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림 1. 미국 자국 내 우라늄 생산량



자료: EIA,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원전 테마형 ETF 주가 및 펀드플로우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